

# “학교서 쌓인 ‘화’, 율화통 캠프서 풀어요”

### 보는 법주사 ‘율화통’ 캠프, 청소년 폭력 감소에 큰 효과

법주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율화통’ 캠프가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2센터’ 가 문을 연(2012년 6월 17일) 이후 2012년에 신고된 학교폭력은 1천996건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은 1천411건으로 585건(29.3%) 감소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도 477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 536건과 비교해 59건(11%) 줄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2012년 671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235명(23%) 감소했으며, 올해는 82명이 검거돼 지난해 96명보다 14명(14.5%) 줄었다. 지난해 검거된 인원 가운데 333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11명이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2명에게는 훈방 같은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학교폭력 감소에는 충북경찰청과 법주사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충

북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율·화·통’ 힐링캠프 등의 선도 프로그램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주사는 2012년 충북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교정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50명 이상씩 캠프를 진행

### 2012년부터 법주사에서 실시

### 청소년센터·대안학교 연계

### 학교폭력 29.3% 감소 효과 보여

해 왔다. 대안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센터 등에서 캠프를 거쳐 간 인원이 1200명에 달한다.

율화통 캠프에서는 108배를 비롯해 ‘별빛 달빛 따라 예불모시기’, 스님과의 정겨운 차담 등이 진행된다. 또 숲길 걷기 명상과 음악명상, 청소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이어진다. 특히 미국 심리학자 존 카



법주사 율화통캠프의 한 장면. 율화통캠프 보관 스님이 참가한 청소년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친 교수가 창안한 MBSR과 요가명상 등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학부모 순찰대를 비롯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우울과 화를 통쾌하게 날려 버리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율화통’ 힐링 캠프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율화통 캠프를 진행하는 보관 스님은 “한번 율화통캠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끼고 참여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심성개발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민중가수 출신 범능 스님 추모열기 높아져

노래하는 민중가수였던 故 범능 스님 <사진> 추모 음악제가 개최된다. (사)불지 불교문화원과 불지사는 오는 6월 14일 광주 광산문화예술관에서 합창형태의 추모 음악제를 개최한다.



추모음악제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범능 스님의 음악 세계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새롭게 찬 불경연대회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음악제는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기념하며 ‘5.18 아카이브’에 범능 스님 음악자료들이 포함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의도 지닌다.

범능스님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민중가수로 널리 알려진 ‘광주출진가’ ‘혁명광주’ 등의 작곡자이자 가수로 활동했다. 출가 후 ‘오월의 꽃’에서부터 ‘무소의 뿔처럼’까지 네 장의 노래음반과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일곱 장의 명상음반을 발표했다. 스님은 또한 매년 외국인 노동자 쉼터 마련, 소아

암 환자 돕기 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으며 새만금 갯벌에서, 부안 핵폐기장 반대 농성장에서, 5·18 추모문화제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다.

추모음악제는 전국의 불교신도와 신영단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5월 17일 광주 남구 종합예술회관에서 예선을 실시한다. 6월 14일 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별된 10팀을 상대로 본선을 개최하며,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상금을 시상한다. 한편 화순 불지사는 범능 스님 1주기를 맞아 6월 13일 추모재를 연다. (061)372-552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불교회관 전통다도 강습회 개설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전통 다도 강습회가 열렸다. 금산사 포교당 전북 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성우)는 4월 9일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수행과 다도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전통다도강좌를 개설했다.



오는 6월 11일까지 총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전통다도 강좌는 전북사 주지동찬 스님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예절, 행다실습, 접빈다례, 다식만들기, 헌공다례 등의 다도강좌를 진행하게 된다.

전북불교회관 관계자는 “지역의 사찰들과 함께 차를 통한 포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했다”며 “불자들이

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누구나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도강좌를 수료한 회원들은 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지평선 축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무료로 다도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고려 혜심 진각국사 사상 기리는 다례제



고려 혜심 진각국사 다례제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 봉사단(회장 대현)은 4월 15일 진각국사의 탄생지인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정다운 스님, 대현 스님, 정암 스님(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상명 스님(순천 향림사 주지)을 비롯해 200여 대중에 참석한 가운데 진각국사 탄신 제836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80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1부 꽃피는 절(주지 목연)의 육법공양에 이어 영산재, 법요식, 초청법문이 진행됐다.

정다운 스님은 초청법문을 통해 “진각국사는 스님들의 수행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禪門拈頌)을 만들어 후학들에게 깨침의 길잡이를 제공했다”며 “한국

의 미래를 위해 선각자인 진각국사께서 대접을 받는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정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금자탑을 세우신 진각국사의 충혼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불국정토를 위해 모두가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각국사선양회 대현 스님은 “현재 진각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기념관에 진각국사의 사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진각국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지눌 스님을 이어 수선사(現 송광사)에서 간화선종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는 <선문염송집>, <심요心要>,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금강경찬金剛經贊>, <선문강요金剛經要>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군산 흥천사, 월명공원 일대서 백일장 성료



봄이면 동백과 벚꽃이 만발한 군산의 명소 월명공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글솜씨를 겨루는 백일장 대회가 펼쳐졌다.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는 4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월명공원 흥천사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흥천사 백일장 대회는 군산의 자랑인 흥천사와 월명공원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참 뜻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글로 표현해 미래의 문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역의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백일장 대회는 운문부

와 산문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우정, 선불, 감사, 부처님의 미소 고등부는 행복, 용기, 불, 부처님의 자비를 시제로 진행됐다.

법회 스님은 “회주 지환스님께서 10여 년 동안 경로잔치를 진행해오다 청소년

표교의 일환으로 6년 전부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타 종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어 흐뭇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강예린 학생(전북 외국어고 1)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찰에서 백일장 대회가 많이 열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고등부 장원은 운문 및 산문 각 50만원, 중학생 장원 30만 원 등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 흥천사 법당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 고창군 무료 진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 의료봉사단은 4월 8~9일 이틀간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 2층에서 고창군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를 시행했다.



내 고향 무료순회 진료는 서울아산병원 직원의 고향 중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혈액검사 등 3개 영역으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7명이 지역주민 120명에게 맞춤형 의료진료, 처방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무료진료에 참여한 어르신

에게 생활용품 전달하는 ‘사랑나눔 전달

조동제 전북지사장

## 봉 행

# 전통명문 표암(알평)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제

전통 명문 표암(알평)공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표암공 문중(경주, 차성, 합천, 평창, 가평, 아산, 재령, 우계, 진주, 원주 이씨) 沙門과 문중 선지식 木巖(向如)堂 體元禪師(고려말 해인사 주지), 惠和宮主 李氏 淨業院 主持(익재공 따님), 退翁堂 性徹禪師(전 조계종 종정), 春城堂 春城禪師(전 망월사 주지 무애대사), 伽山堂 智冠禪師(전 조계종 총무원장) 문도께서는 청풍계맥이 전승되고, 열이 線連하도록 두루두루 동참하옵길 앙망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00 (음력 3월 중정일)

장 소 : 부산 태종사 (부산 영도구 동삼 2동 산 29-4) ☎ 051) 405-2626 (조실 도성 영공스님)

문 의 : 010-6478-1569(현불)

## 표암(알평) 승가회장 흥산 현불